

원산지 표시 및 생산이력제 도입으로 소비자를 보호하자

김 천 주

(사)대한주부클럽연합회 회장

조류독감으로 인해서 닭·오리 양 업계가 그동안 크게 타격을 받은 것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그나마 어느 정도 회복이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요사이 경제가 대단히 어렵고 힘들지만 여름철 닭고기 소비가 점차 늘어난 것에 대해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유통업체나 외식업계에서 출하가격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마진을 남기고 판매하고 있다는 소식에 대해서는 그나마 회복단계에 있는 양계업계가 소비위축을 가져올까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물론 일부 외식업계라고는 하지만 그것이 곧 양계업계 전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요사이 소비자들은 만두사건으로 인해 안전에 대한 의식이 대단히 높아져 있어 업계에서는 소비자 안전에 대해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류독감의 원인이 수입조류나 사료에서 기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국산 양계나 오리에 대해서도 대단히 민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는 이를 식별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부터 원산지 표시 및 생산이력제의 도입을 통해 다소나마 우리 양계·오리가 비싸다 하더라도 안전하게 사 먹을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준다면 우리 소비자들은 국산 양계·오리를 선택하여 업계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특히 도계장에서 출하가격을 정해준다면, 예를 들어 공산품에 공장도가격을 표시함으로써 지나친 마진을 제한하는 것과 같이, 오리나 닭에도 출하가격을 표시해 준다면 유통업체나 외식업계가 지나친 부당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어느정도 막을 수 있는 장치라 생각하여 출하가격 표시제는 적극 도입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생산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축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